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5호 【루계 제23267호】 주체99(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신문과 뷸레찐에 게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주성을 견지하자》를 로씨야 하바롭스까야 크라예바야 찌뽀그라피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사장은 발행식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김정일동지께서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데 대한 기쁨속에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발행하게 된다.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조선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정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도를 밝혀준 지침이다. 조선은 자주정치로 존엄높은 주체의 나라이며 자주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자그마한 양보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인정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을 당당히 지켜나가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3.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의 요지를 나이제리아신문 《뉴 나이제리언》 10월 8일부가 게재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3.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의 요지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브라질준비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에서 최근 공동으로 발행한 뷸레찐에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앞

우리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당신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완강한 투쟁으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로정에는 그이의 위대한 헌신성, 근면성이 새겨져있습니다.

우리는 뜻깊은 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신들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내면서 귀 당이 앞으로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다시한번 축원합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2010년 10월 7일 아바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월 25일과 26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10월 25일 평양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곽백웅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고위군사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 전 공군사령원 왕해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과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부부장 려국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의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시였다.

석상에서 곽백웅부주석은 김정일령도자께 보내는 호금도주석의 친절한 인사를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호금도주석에게 보내시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여줄것을 그에게 부탁하시였다.

접견을 마치신 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손님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통신은 또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기념 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해방군보》, 《광명일보》, 《베이징일보》, 《해방일보》와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일본의 지지통신, 《아사히신붕》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 NHK방송, 미국의 VOA방송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기념 군중대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통신, 신문, 방송들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군중대회에 함께 참석하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

국제사회계가 격찬

절세의 위인을 최고수위에 모시여 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백전백승의 력사를 수놓아가는 조선로동당은 세계 혁명적당들의 본보기로,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승리의 상징으로 국제사회계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있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성명에서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해왔으며 그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당이다고 찬양하였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사상적순결성과 단결은 사회주의보루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력한 국가로 건설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이라고 하면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와 조선인민의 사상적단합은 세계사회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조위원장은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은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며 모든 활동을 광범한 근로대중의 리익과 의사에 맞게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은 독특한 혁명적당으로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찬양을 받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자주화된 세계를 바라는 진보적인류의 유일한 희망의 등대이라고 강조하였다.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65년력사는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탈선도 없이 인민대중의 한없는 신뢰속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이라고 하면서 조선이 미일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것은 바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공적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굳건하기에 세계사회주의운동은 힘있게 전진할것이다고 확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고 조명록동지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고 조명록동지의 장의식이 10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였다.

이날 장의식장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투철한 혁명적원칙성과 고지식한 품성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저명한 활동가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령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의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의 령구가 발인되였다.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및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령구에 들어총!》을 하였다.

고인의 령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애국렬사릉을 향하여 떠났다.

령구차가 지나는 수도의 거리들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우수한 아들인 조명록동지와 영결하기 위하여 모여온 10여만명의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서있었다.

군중들은 생애의 전기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반미대결전에서 혁혁한 군공을 세우고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에 특출한 공헌을 한 조명록동지의 한생을 되새기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

장의행렬은 옥류교와 만수대거리, 보통문, 전승광장을 지나 인민군군인들이 서있는 거리를 서서히 행진하였다.

군인들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성장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유일적령군체계가 확고히 선 수령의 군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한 조명록동지의 생애를 가슴뜨겁게 추억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명록동지를 한품에 안아 유능한 군사일군으로 체계적으로 키워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가장 중요하고 책임적인 임무를 그에게 맡겨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 사랑과 믿음을 안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비행사로 영용하게 싸웠으며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공군무력강화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친 조명록동지.

인민군대를 위대한 장군님께 무한히 충실한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 공적을 쌓아올린 조명록동지와 영결하는 군인들이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각계층 근로자들은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투철한 자세와 립장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전우 조명록동지와 영결하는 비애에 잠겨 령구차를 전송하였다.

군중들은 계급의 무기를 틀어쥔 첫날부터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투쟁한 조명록동지의 한생이야말로 혁명전사의 가장 큰 영예와 삶을 빛내인 보람찬 생이였음을 새겨안았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은 조명록동지의 모범을 본받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야말 결의를 가다듬었다.

령구를 실은 장갑차는 애국렬사릉에 도착하였다.

애국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영결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최영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인 변영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룡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내각부총리들인 리태남동지, 김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박정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우동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창섭동지, 조선인민군 차수 리하일동지와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영결식에 참가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영결식참가자들이 고 조명록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명록동지는 비록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으나 그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고귀한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애 도 사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실한 제자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우이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저명한 활동가인 고 조명록동지와 커다란 슬픔속에서 영결하게 됩니다.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생애의 전기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나날로부터 수십년에 걸치는 반미대결전에서 혁혁한 군공을 세우고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행로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린 우리 당과 인민의 훌륭한 아들인 조명록동지는 그렇게도 념원하던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심장의 고동을 멈추고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조명록동지와 영결하게 되는 비통한 이 시각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처럼 신임하고 극진히 사랑하시던 귀중한 혁명동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저명한 활동가를 잃은 슬픔을 금할수 없으며 북받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수 없습니다.

주체17(1928)년 7월 12일 함경북도 연사군 빈농민의 가정에서 태여나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던 조명록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과 더불어 인생전환의 길에 들어서 자주적인간의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던 조명록동지는 미제의 무력침공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용약 전선에 탄원하였으며 조선인민군 비행사로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보살피심속에서 전후 조선인민군 비행부대의 대대장, 련대장, 사단장으로 자라나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공군무력을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며 조국의 하늘을 금성철벽으로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동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시작되고 우리 혁명무력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한 1960년대말부터 공군사령부 참모장, 사령관의 중책을 지니고 공군부대안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조명록동지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앞에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충직하게 보좌해드리고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둥,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심전력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한생이 어리여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는데 특출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조명록동지는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과 외교정책을 높이 받들고 미제에 의하여 분렬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당과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조명록동지는 자기 생애의 전과정에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평온한 날에나 어려운 날에나 변심이 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운명으로, 자기 인생의 위대한 은인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따랐으며 혁명전사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어떻게 모시고 충직하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면으로 계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수단공화국 대통령인 수단민족대회당 위원장, 남아프리카공산당 총비서, 네팔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몽골민족새당 위원장, 수리아공산당(바그다쉬) 중앙위원회 총비서, 수리아공산당(유세프) 위원장과 제1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프랑스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총비서,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총비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위원장, 뜌니지인민통일당 총비서,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총비서, 에질트나쎄르아랍민주당 총비서, 미국사회로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뻬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뻬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총비서, 국제비서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또한 수리아아랍공화국 군대 및 무장력 부총사령관인 국방상, 네팔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비서,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서기장,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 말따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국제관계비서, 로씨야 엔. 에쓰. 나제쥬지나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베료즈까무용단 단장과 지배인, 로씨야 엠. 예. 빠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합창단 단장, 아랍변호사동맹 총서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서기장,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서기장, 아프리카태권도련맹 위원장을 비롯하여 중국, 로씨야,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수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탄, 까자흐스딴, 까타르, 아랍추장국,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예멘, 그리스,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말따,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웨리예, 체스꼬, 프랑스,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딸리아, 감비아, 기네, 나이제리아, 말리, 잠비아, 탄자니아, 민주꽁고, 뜌니지, 알제리, 우간다, 에짚트, 에티오피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뻬루,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 고결한 충정의 표시로 된다고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강조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수십성상은 조선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성스러운 나날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선군혁명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신념의 맹세로 가슴 불태운다. —당창건기념탑에서— 본사기자 찍음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비약의 폭풍을!

주체의 궤도를 따라 휘황한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땅우에 위대한 시대정신이 힘있게 나래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

불굴의 이 정신은 오늘 세기를 주름잡으며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활화산처럼 불태우는 결사의 신념이며 각오이다.

얼마전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이 천만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잊지 못할 지난 4월에도 석수떨어지는 지하막장에 친히 들어가시여 병사들의 애국의 구슬땀이 슴배인 대형굴길들과 거대한 구조물들을 보시고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며 감사를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주시고도 떠나실 때에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더 높이, 더 빨리 달려나가길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안으시고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하시였다.

하늘같은 그 믿음, 그 은정에서 군인건설자들만이 아닌 희천발전소 건설자들모두가 심장으로 받아안은것은 과연 무엇이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군, 전민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살며 싸워나갈 때 이 세상에 우리를 당할 강적이 없고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끼자.

바로 이것이 걸출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천만군민의 심장에 울리신 불같은 호소이다.

위대한 어머니당을 위해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할 불타는 맹세로 떨쳐나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보다 큰 비약에로 고무추동하시며 혁명적대진군의 앞장에 거연히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정녕 혁명적군인정신을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이 이 땅에 기적과 위훈의 불길로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어찌 강성대국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내 조국의 억센 기상에 대해 생각할수 있으랴.

하나의 숭엄한 화폭이 떠오른다.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인 주체85(199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군인건설자들이 일하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일군들의 거듭되는 간청도 마다하시고 군인들의 피와 땀이 스민 험한 물길굴로 서슴없이 들어가시여 고귀한 창조물에 바쳐진 그들의 수고를 일일이 헤아려주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멸의 그 모습,

이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현실로 목격하였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해주시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따라배울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와 혁신의 기상으로 온 나라에 힘있게 나래치게 하기 위해 그이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 따라배워야 할 투쟁정신이며 오늘의 난관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사상정신적량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어느해 정월 초하루날에도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세계를 따라배워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고, 일군들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부르며 대오의 앞장에서 나간다면 그 어떤 장벽도 뚫고 산도 옮길수 있다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시면서도 혁명의 주력군이며 기둥인 인민군대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끊임없이 혁명적영향을 주어 인민군장병들속에서 발휘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 이것이 군민일치사상의 본질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라고 강조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오늘 혁명적군인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투쟁정신으로 되였으며 위대한 정신을 원동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지난해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룩한 150일전투, 10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의 원동력도 혁명적군인정신이다.

온 한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커다란 위훈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은 전투승리의 근본원천이였다.

혁명의 총대가 번쩍이는 최전연고지들과 수많은 경공업, 농업, 과학연구기지들, 야금기지들, 발전소와 탄광, 광산들, 여러 건설장들…

걸출한 선군령장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애국헌신의 그 길우에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온 사회에 넘쳐나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일어나지 않았던가.

강성대국으로 달리는 내 조국의 거세찬 숨결을 뜨겁게 호흡하시며 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은 언제나 들끓는 희천에 계시였다.

천만군민이 울린 150일전투승리의 함성이 강산을 진감하고있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희천2호발전소 언제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심장에 암반마냥 새기고 세계수력발전소 언제건설력사에 없는 콩크리트타입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닌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성과를 깊이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 흐르고있는 분과 초는 그대로 비약이고 혁신이라고,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이 나래치고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희천발전소 건설속도가 바로 선군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혁명적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이라고 하시였다.

우리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세기적인 대자연개조사업도 마음먹은대로 척척 해제낄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수령, 당, 군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나라에서만 누릴수 있는 부귀영화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산발을 쩡쩡 울리며 메아리친 그 말씀에는 희천발전소 건설자들만이 아닌 천만군민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려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높이 떨치고 100일전투에서도 기어이 승리를 이룩하길 바라시는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었다.

절세의 위인의 하늘같은 그 믿음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고 비약의 불길로 타올랐기에 거창한 100일전투의 날과 날들이 그렇듯 놀라운 위훈으로 수놓아질수 있은것 아니랴.

희한한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주체철이 사품쳐흐르며 주체섬유에 이어 주체비료가 폭포쳐 쏟아지는 경이적인 현실은 그 어느것이나 걸출한 선군령장께서 심어주신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자랑찬 실체이다.

희천을 찾으신 그날 만년대계의 거창한 창조물들을 보시며 근위부대병사들의 미래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그토록 값높이 일러주시고 그것이 온 나라에 더욱 나래치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지금 전체 군대와 인민이 희천속도로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자라난 천만군민은 혁명적군인정신을 활화산같이 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변혁을 이룩하며 부강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다.

본사기자 계성남
우명진

1면에서 계속

동지는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결사옹위하는것이 혁명무력의 첫째가는 사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계급의 무기를 틀어쥔 첫날부터 심장의 고동을 멈추기까지 60년에 걸치는 오랜 기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였습니다.

조명록동지는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데서 인민군대가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장깊이 새기고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위한 정치군사적기초를 다지는 력사적위업수행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조명록동지는 수령과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하여,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청렴결백하고 고지식한 품성, 뜨거운 인정미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조명록동지의 한생은 당과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자애로운 손길아래서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으로 성장하여 혁명전사의 가장 큰 영예와 삶을 빛내여온 보람찬 한생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전 인간이하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던 조명록동지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유능한 군사일군으로 체계적으로 키워주시였으며 공군부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을 잘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일밖에 모르는 조명록동지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명록동지에게 가장 중요하고 책임적인 임무를 맡겨주시고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미제와의 총포성없는 정치군사적대결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며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명록동지의 건강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외국에 보내여 병치료를 받도록 해주시였을뿐아니라 가족들에 대해서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피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조명록동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동지에게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금시계표창,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많은 훈장과 표창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 초강도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명록동지의 서거에 대한 비보를 받으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몸소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여 장의행사조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고인의 령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장의를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하며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장하도록 하는 최상최대의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혁명전사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시며 영생하는 정치적생명과 끝없는 영광을 안겨주시는 삶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우수한 아들이며 당과 국가, 군대의 명망높은 활동가인 조명록동지와 영결하게 되는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여기고있으며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고 조명록동지여!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때에 오랜 기간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그처럼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동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피흘리며 함께 싸워온 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동지의 생전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할것입니다.

조명록동지는 비록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으나 동지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동지의 고귀한 업적은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고 조명록동지여,
고이 잠들라!

주체99(2010)년 11월 10일

로동계급에게 달아주신 비약의 나래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98(2009)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기업소의 생산공정들을 깊은 관심속에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 환한 미소가 어리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돌아보니 대단히 만족하다고, 생산전망이 뚜렷하게 안겨오고 신심이 생긴다고 하시면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는 생산잠재력이 크고 기술력량도 튼튼히 준비되여있는것만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면 생산을 빠른 기간에 활성화할수 있을것이라고, 철강재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황철이 일떠서면 경제강국건설에서 한몫할수 있을것이라고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다정히 둘러보시며 제기할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기능공후비문제가 걸렸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즉석에서 제대군인 수백명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오늘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와서 전망을 료해하여보니 이 련합기업소에서 다른 금속공업기업소들과 얼마든지 경쟁을 할수 있을것 같다. 이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가 예선경기에서 통과되고 직선주로에 들어서서 달릴 준비가 되였다고 할수 있다. …

황철로동계급에 대한 믿음이 어린 가슴뜨거운 말씀이였다.

황철이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이겨내고 제힘으로 일떠선것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이렇듯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우리가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대홍단군에 제대군인들을 보내주었다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시기에는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끌끌한 제대군인들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수백명의 제대군인,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철의 로동계급에게 달아주신 비약의 나래였다.

본사기자 리금분

인적드문 산촌에 넘치는 어버이사랑

김책시 만춘리의 눈부신 전변을 두고

이 땅 그 어디에나 그러하듯이 김책시 만춘리에도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해방전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류랑민들이 높고 험한 마천령을 채 넘지 못하고 인적드문 이곳의 골짜기들에 피나리보짐을 풀었다는 만춘리,

그러한 고장이 오늘은 살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 인민들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김책시 만춘리는 높은 산들로 둘러막혀있다. 그만큼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들이 많은 고장이다.

해방전까지만 해도 이 고장은 보이는것은 높은 산들과 깊은 골짜기, 척박한 비탈밭들뿐이여서 가난에 짓눌리운 사람들의 한숨소리만 높았다.

리당일군인 허영철동무의 말에 의하면 만춘리는 지명그대로 봄이 늦게 오는 곳이여서 풍만한 농사작황도 기대할수 없었던 고장이였다고 한다.

만춘리가 해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되기 시작한것은 근 50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찍으신 때부터였다.

잊지 못할 그날은 주체50(1961)년 5월 8일이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렬차가 함경남도의 린접인 만춘역에 서서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의 안광에는 피로가 어려있었다. 벌써 여러날에 걸쳐 함경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데 이어 또다시 함경북도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서 산촌을 부감하시며 잠시라도 겹쌓인 피로를 푸실것을 간절히 념원하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래도록 역구내를 거니시며 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시 역구내 북동쪽방향의 산에는 과수원이 무연하게 펼쳐져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과수원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이 고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사상이 관철되고있다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앞으로 비탈밭과 야산을 리용하여 과수원을 더 조성하면 이 고장 사람들이 잘살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끝없이 설레이였다.

그해 4월에 진행된 북청확대회의에서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그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인적드문 야산에 펼쳐진 과수원을 보시면서도 이 고장 사람들의 행복에 넘친 앞날을 그려보시는 우리 수령님은 정녕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격정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잡관목을 정리하고 방목지를 조성하면 축산도 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촌경리를 다각경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은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일해야 한다고, 전망적으로 생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이 고장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방도가 명백히 밝혀져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만춘리의 앞날에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이 고장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은 끝이 없었다.

너무도 험하고 외진 곳이여서 사람들의 발길이 덜 미치던 인적드문 고장에 우리 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이 가닿았으니 만춘리사람들의 격정이 왜 북받쳐오르지 않았으랴.

그후 만춘리는 전변의 새 력사를 맞이하였다.

야산들에는 과수원이 펼쳐지고 방목지들에는 풀먹는집짐승들이 떼지어 흘렀다. 사회주의문화농촌답게 훌륭히 꾸려진 리문화회관과 진료소, 문화후생시설 등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변의 그 나날 이곳 사람들의 일본새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기어이 꽃피워가려는 그들의 드팀없는 신념은 축산작업반이 자리잡고있는 산중턱의 천연암반에 새겨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다 말해주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농산제2작업반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더욱 활짝 꽃피워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이 고장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깊이 느낄수 있었다.

모든것이 흐름식으로 되여있으면서도 알알럴기를 종합적으로 할수 있게 설계된 탈곡장과 작업반에 건설된 강냉이창자와 종자보관실, 농기구창고는 참으로 특색있었다.

온 가족은 물론 형제들과 함께 이곳에 진출한 고경준작업반장과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는 허상국기술원, 깐진 일솜씨로 낟알럴기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는 작업반원들의 구리빛얼굴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이 고장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비껴있었다.

오늘 만춘리는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의 나래를 펴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다.

본사기자 김동철

공동사설의 과업을 받들고 전력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총진군의 기상안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수력발전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총공세의 불길높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창조와 비약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각지 수력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10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11월에 들어와서도 총공격전을 드세게 벌림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근 1.5배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눈부신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발전기의 효률을 끊임없이 높여 적은 물량을 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의 일군들이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이미 마련되여있는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각지 수력발전소들의 물확보정형과 발전설비 및 수력구조물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전력생산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들을 현실성있게 세웠다.

이에 기초하여 일군들은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어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수력발전소들에서 설비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자그마한 이상요소도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설비점검정형에 대한 평가사업을 운영실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고있다.

특히 련관단위들과의 협동을 강화하여 발전설비 및 수력구조물들의 보수정비에 필요한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다음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이 각지 발전소들에 달려나가 기술지도를 잘하면서 립체전의 방법으로 생산과 발전설비보수를 동시에 내밀게 하고있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설비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발전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해당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생산현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건보장사업을 잘하고있다.

이에 따라 수풍발전소와 태천발전소, 장진강발전소와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설비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새로운 형의 수차와 조속기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발전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수풍발전소와 허천강발전소, 태천발전소와 강계청년발전소의 로동계급이 매일 많은 량의 전기를 생산해내고있다. 특히 수풍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발전설비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면서 생산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전달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꾸려놓은 수리기지들에 의거하여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보장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태천발전소와 강계청년발전소의 로동계급은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보장할 한마음으로 높은 수위, 높은 효률운전을 철저히 보장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1.4배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위원발전소와 서두수발전소에서 증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고있다. 위원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전력증산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생산과제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서두수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력량을 집중하여 발전설비들의 보수정비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증산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합리적인 부하분배를 실현하면서 날마다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장진강발전소, 대동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장자강발전소, 남강발전소의 로동계급도 10월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발전설비들의 관리운영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3.4분기계획을 기한전에 훨씬 넘쳐 수행한 각지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자력갱생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날에날마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새로운 대고조의 승리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해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 총진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수력발전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설비리용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며 설비들을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잘 다루고 설비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전력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설비관리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생산실천에서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전력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작전과 지휘를 방법론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사적기대의 기대공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앞장에 서도록 잘 이끌어주면서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고있다. 이와 함께 력량을 집중하여 발전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힘있게 내밀면서 운영직장들에서 업간점검과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청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설비관리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들은 설비들에 대한 예방보수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그 운영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이상현상도 즉시에 바로잡아나감으로써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2직장의 로동자들은 가동중에 있는 발전설비들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관리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고있다.

4직장과 3직장의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설비고장을 미리막기 위한 대책들을 앞질러 세워나가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하기 위한 사업을 기술혁신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기업소에서는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면서 기능전습을 강화하여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고있다.

전기시험소와 공업시험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설비들의 수명을 훨씬 늘이고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전력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보이라와 타빈발전기를 비롯한 발전설비들의 대보수전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보수기일을 훨씬 줄이고 뜻깊은 당창건 65돐전으로 제기된 대보수과제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성과적으로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뿐만아니라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여러 대상에 대한 중보수과제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수행하였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면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발전설비의 동음속에 비낀 창조적열정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전력생산자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투쟁에 자신들의 불타는 열정과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부대입니다.》

얼마전 운영중에 있던 보이라에서 불비한 요소가 나타났을 때였다. 급탄기를 비롯하여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자면 부득불 보이라를 세워야 하였다.

—순간도 생산을 멈출수 없다. 심장을 바쳐서라도 보이라의 숨결을 지켜내자!

하나의 지향을 안고 깊은 밤 현장으로 달려나온 열생산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저저마다 어려운 모퉁이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였다. 이들은 불리한 작업조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보이라를 수리하고 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리였다. 이런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다른 직장들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열생산1직장의 전투원들은 보이라들에 대한 업간점검과 순회점검을 실속있게 하면서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타빈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고장난 설비를 새로 수리정비하여 가동을 보장함으로써 타빈발전기의 운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보이라들의 부하변화에 맞게 증기압력조절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여기서만도 많은 증산예비를 얻어냈다.

어찌 이뿐이랴. 여러날은 실히 걸린다던 보온작업을 단 하루동안에 해제낀 보온직장의 로동자들이며 밤낮이 따로없이 창조의 불꽃을 날리며 맡겨진 용접과제를 기한전에 끝낸 전기보수직장의 전투원들, 2호타빈발전기의 대보수에서 해체작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한 타빈보수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

이렇듯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여러대의 발전설비대보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글 본사기자 정성일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득장청년탄광에서

득장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예비채탄장을 더 많이 마련하여 화력발전소들에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얼마전 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일군들과 탄부들이 굴진을 앞세우기 위하여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 투쟁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4대선행부문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대고조의 앞장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껴야 합니다.》

굴진을 앞세우는데서 탄광일군들이 주목을 돌리고있는것은 발파용자재를 적게 쓰면서 발파효률을 높이도록 하고있는것이다.

현장을 손금보듯이 파악하고있는 탄광의 책임일군은 어느날 한 갱에 나가 초급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하나의 문제점을 찾게 되였다. 그것은 초급일군들이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해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품을 들이지 않고있는것이였다.

초급일군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책임일군은 갱의 여러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걸린 문제가 어떤것인가를 깊이 료해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굴진실적이 높은 소대에서는 새로운 발파방법을 도입한 후 암질조건에 맞는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창안하여 발파효률을 높이고있는데 그렇지 못한 소대들도 있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현실은 갱초급일군들이 진취적이며 창발적인 일본새로 막장지휘를 더 잘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실태를 료해한 책임일군은 굴진을 담당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만나 탄광의 실정에 맞는 보다 혁신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굴진막장들에서 발파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탄광참모부의 일군들은 발파효률을 높이는 문제를 탄광의 전망생산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또한 해당 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 갱의 탄부들이 새로운 발파방법을 창안하였을 때에는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한개 단위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보여주기사업은 현실에서 큰 은을 냈다. 얼마전에도 탄광에서는 갱장, 굴진소대장들에게 새로운 발파방법으로 발파효률을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일군들과 탄부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탄광에서는 1갱 고속도굴진소대의 모범을 일반화하고 굴진소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갔다.

오늘도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할 한마음안고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김광현

신창청년탄광 5갱 채탄3중대에서

신창청년탄광 5갱 채탄3중대의 탄부들이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화력탄보장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중대에서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예비를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모든 채탄소대들에서 단위시간에 많은 석탄을 캐내도록 하고있다.

중대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면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실천적모범으로 채탄공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채탄1소대의 탄부들이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중대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아 해제끼고있다. 이곳 소대원들은 앞선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주인된 자각을 안고 막장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고있다.

중대안의 모든 채탄소대원들은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한마음으로 채취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정춘남

사리원시에 화초온실이 새로 건설된다

사리원시 립석지구에 화초온실이 건설되고있다.

화초를 키우는데 절실히 필요한 빛과 온도, 물 등 여러가지 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건설되고있는 화초온실은 1만 수천㎡의 부지에 건물식온실 4동, 현대적인 박막식온실 4동 그리고 보조건물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향토애와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학교, 자기 군과 도를 알뜰하고 깨끗하게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리원시를 비롯한 황해북도안의 모든 시, 군들이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사업뿐아니라 도시미화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시당위원회에서는 년간 수십종에 수십만포기의 화초를 생산할수 있는 온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시당책임비서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부지선정으로부터 설계, 로력조직과 자재준비 등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온실건설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지난 1일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온실건설장이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김철남, 강철혁동무들을 비롯한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시안의 닭공장, 량정사업소, 자동차사업소, 주택보수사업소, 상업관리소 등 건설에 참가한 여러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량정사업소, 닭공장의 일군들은 화초온실건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라는것을 건설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건설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상업관리소의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화초온실건설에서 시안의 녀맹원들이 큰 몫을 맡아 해제끼고있다.

리선숙동무를 비롯한 시녀맹위원회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자기 고장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는 일에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의 열정에 떠받들려 꽃나무재배장도 전망성있게 건설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결의목표실현을 통해 본 혁신적인 일본새

동흥산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얼마전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한 기세드높이 생산에서 혁신과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동흥산은하피복공장을 찾은 우리는 이곳 일군들의 투쟁기풍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작은 부지면적에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여러동의 건물을 훌륭히 건설한것때문만이 아니였다. 걸볼안이라고 지난 몇해동안에 공장의 생산능력은 7배로 장성하였으며 해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팡팡 생산해내고있었던것이다. 하다면 이런 혁신적인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목표가 높은 운동이기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계별로 목표들을 옳게 설정하고 그것을 점령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공장의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였다. 그 결의목표의 조항들이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한것은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궐기모임이 있은 이후 4차의 전망결의목표와 7차의 단계별결의목표, 30차의 보충결의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이렇듯 훌륭한 공장으로 전변되였다는 이곳 일군의 이야기가 떠올라서였다.

몇해전 공장에서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고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세울 때의 일이였다.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가까운 몇해사이에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생산능력을 몇배로 늘일데 대한 문제를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장의 면모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몇채의 단층건물에 불과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당의 의도에 맞게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자면 건물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능력도 확장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던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는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여러동의 덩지 큰 건물들을 자체로 짓는것은 헐치 않다고 하면서 조건이 마련된 다음에 건설을 진행하였으면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조건이 어려운것만큼 그들의 의견도 리해는 되였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거나 난관앞에 주저앉는것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사람들의 일본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몇해후에는 공장의 면모를 보다 훌륭히 전변시켜야 합니다.》

초급당일군의 이런 절절한 호소가 일터마다에서 울려퍼졌다. 초급당일군은 단계별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해마다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낀다면 능히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단계별결의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수천㎡의 면적에 여러층으로 된 생산건물을 새로 건설할것을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해 공장전망도를 잘 그려 게시해놓도록 하였다. 자신들의 리상과 포부가 반영된 전망도는 종업원들의 심장을 크게 울려주었다.

종업원들은 우리도 남들이 보란듯이 공장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자고 하면서 하루생산과제를 수행하고는 짬시간을 리용하여 기초를 팠고 수천장의 블로크를 찍어냈다.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은 돌격전의 앞장에서 종업원들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긍정적소행들을 제때에 소개일반화하면서 그들을 혁신에로 떠밀어주었다.

세멘트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지될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한달음에 세멘트공장으로 달려간 지배인은 그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갔다. 그는 세멘트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곳 일군들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현장에서 지원사업도 하고 종업원들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지배인의 이런 헌신적인 일본새는 그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고 그것은 그대로 세멘트생산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공사를 중단없이 밀고나갈수 있었다.

지배인이 출장지에 있을 때 초급당비서는 공장에서 행정경제사업을 적극 떠밀어주면서 공사를 줄기차게 내밀었다.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결의목표에 반영한대로 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개건공사를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당조직과 일군들의 이런 믿음과 지지성원속에 행정경제일군들은 옳은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면서 결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단계별결의목표에 반영된대로 생산건물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끊임없이 높이 세우면서 생산에서 계속혁신이 일어나도록 한것 또한 초급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끊임없는 강행군현지지도와 현명한 령도로 매 시각 변이 나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현실은 일군들이 어제날에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이미 세운 결의목표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보충결의목표를 끊임없이 세웠다.

올해 공장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또다시 높이 세운 결의목표를 수행할수 있은것은 계속전진에로 고무한 초급당위원회의 이런 사업기풍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공장에서 기술혁명결의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간것도 매우 주목된다.

결의목표에 반영한 연단기를 제작하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였다.

초급당일군은 현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전투를 벌리는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그들이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도록 진심으로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연단기제작에서 성공하고 생산에 도입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모범을 제때에 소개일반화하여 온 공장에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믿음은 기술자, 기능공들을 기술혁명수행에로 떠밀어주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이렇게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지난 몇해동안에만 하여도 생산에서 제기되는 수십건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생산의 질적지표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기사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이끌어나갔다. 결국 결의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실현해나간 이곳 일군들의 완강한 실천력은 공장을 현대적인 공장으로 솟구쳐오르게 하였던것이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하는것, 바로 이것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수행을 통해본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이다.

본사기자 송창윤

그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희천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희천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그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91(2002)년 7월 조합을 찾으시여 해마다 년간계획을 수행해온 이곳 조합의 성과를 두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일을 잘한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관리위원장 김영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도 높은 생산목표를 내걸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자재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설비관리를 깐지게 하면서 생산을 적극 내밀었다.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은 조합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로루기를 개조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용메달을 받아들여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이와 함께 형타들을 개조하여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는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긍지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밑에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공로혁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꽃피는 예술인들의 긍지높은 삶

뜨거운 은정 대를 이어 전해가리

우리는 지금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키를 솟구며 일떠선 예술인살림집앞에 서있다.

창조와 혁신의 활력에 넘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내 조국의 거세찬 숨결이 가슴부풀도록 안겨오는 수도의 한복판에 훌륭하게 일떠선 새 살림집이 하많은 사연을 전하며 행복의 불빛을 반짝이고있다. 그 불빛에 실려 안겨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우리의 가슴을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정치,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정치가 바로 우리 당의 인덕정치입니다.》

대를 이어 길이 전할 또 하나의 사랑의 전설이 꽃펴난 그날은 당창건 65돐을 앞둔 지난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갓 입사한 국립연극단 예술인들의 집을 몸소 찾으시였다.

정말이지 그 누구도 꿈결에조차 생각지 못한 일이였다.

180여회에 달하는 경희극 《산울림》공연을 진행하여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 비약의 산울림열풍을 일으킨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장하고 미더우시여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시대의 본보기살림집으로 건설된 현대적인 고층살림집을 국립연극단 예술인들에게 안겨주신데 이어 그들의 새 집들이를 축복해주시려고 찾아오시였으니 연극단의 일군들과 예술인들의 격정은 끝이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고층살림집의 웃층에까지 오르시여 위치도 좋고 경치도 좋다고, 집을 잘 지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손색이 없이 꾸려진 살림집에서 행복한 살림을 펴게 될 자식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방들과 부엌, 세면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돌아보시였다. 자애로운 그 모습을 우러르며 연극단의 일군들과 예술인들은 잊지 못할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온 나라에 경희극 《산울림》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던 지난 5월, 또다시 공연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현대적인 새 살림집을 지어줄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자신께서 꼭 새 집들이때 가보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시였다.

살림집의 위치와 설계, 시공방향과 건설력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책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정형을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빠른 기간에 살림집이 완공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매 방들의 구조와 가구배치, 장판의 색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며 하루빨리 훌륭한 새 살림집을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같은 사랑은 군인건설자들로 하여금 단 몇달동안에 만수대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살림집건설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그 나날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과 하신 사랑의 약속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있은줄 그 누가 알았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갓 입사한 국립연극단 예술인들의 가정을 찾으신 날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들은 바로 그것을 전하여주었다.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의 배우들인 백승란, 김철진, 최금향동무들과 단장 리지영동무의 가정을 친히 방문하시고 이들의 새집들이를 뜨겁게 축복해주시였다.

몸소 그들의 가족까지 만나주시고 나이는 몇살이고 직장은 어디에 다니는가, 새 집이 마음에 드는가 다심히 물어보시며 새집들이기념품까지 한가득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부모형제보다 먼저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앞날도 축복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예술인가족들의 소박한 노래도 들어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길 바란다고, 건강해야 한다고 친부모와 같은 사랑의 당부도 남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정은 대를 이어가며 길이 전해갈 사랑과 믿음의 새 전설이다.

정녕 잊지 못할 그날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폭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여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화폭이였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런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윤지혜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어버이사랑 넘치는 집

국립연극단 배우 최금향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딸랑— 딸랑—

초인종소리도 정답게 들려오는 3층 3호,

못 잊을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찾아주시였던 집앞에 이른 우리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립연극단의 신인배우인 최금향동무와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새집들이경사를 축하해주시였다고 이야기하는 연극단일군의 목소리도 격정에 떨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모습이 우리앞에 나타났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 당보에 실리였던 날 온 나라 인민의 관심을 모았던 최금향동무의 어머니 공금숙녀성이였다.

집안에 들어선 우리의 걸음은 저도모르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앉으시였던 자리로 향해졌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날의 감동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가족들의 눈굽에는 뜨거운것이 가득 고여올랐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우리 가족들이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장군님께서 몸소 안겨주시는 사랑의 가정용품들을 받아안으며 친아버지가 오신것만 같아 목이 꽉 메여 감사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했다고 눈물속에 뇌이는 최금향, 조경일동무들,

가슴속에 솟구치는 뜨거운 격정을 누르며 방안을 돌아보던 우리는 공금숙녀성에게 이끌려 두장의 사진앞에 이르렀다.

이 사진들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딸, 사위의 결혼사진과 세 자식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이야기하며 공금숙녀성은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축복속에 새살림을 편 신혼부부와 가족들의 얼굴마다에 어린 한없는 고마움의 정, 감사의 정이 우리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들을수록 감동깊은 사랑의 이야기에 이어 공금숙녀성이 신바람나게 들려주는 집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대동강의 아름다운 풍치가 한눈에 안겨오고 창고까지 달려있는 넓다란 베란다며 따스한 해빛이 눈부시게 흘러드는 서재를 비롯한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들에 구색이 맞게 놓여있는 갖가지 가구들과 설비들…

아버지장군님의 다심하신 어버이사랑이 구석구석 슴배여있는 새 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이들의 자랑과 긍지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딸랑— 딸랑—

자랑과 행복 끝없는 이 가정에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살림집에서 장군님의 축복을 받으며 새살림을 시작한 신혼부부와 가족들이 보고싶어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그때마다 정답게 울리는 초인종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것만 같았다.

이 세상 가장 뜨겁고 열렬한 어버이사랑을 보려거든, 가장 복받은 인민의 모습을 보려거든 여기에 오라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그 품은 우리 삶의 요람입니다》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속속들이 슴배여있는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면 우리 가족들은 장군님앞에서 불렀던 노래의 구절을 되새기군 합니다.

따스한 이불속에 잠들다가도
문득 깨여나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 다 아는가 장군님
사랑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내 집 뒤방에도 당신의 사랑
…

정말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하고 뜨거운 어버이사랑으로 가득차있는 우리 국립연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집입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축복속에 새집들이를 한 연극단의 모든 가정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심장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 예술인들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우리들에게 세상이 부럽도록 온갖 행복을 다 안겨주시니 장군님의 그 품속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보금자리를 편 우리들의 긍지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진군길을 걷고있는 인민들을 찾아 멀고먼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계실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며 우리 연극단의 전체 예술인들은 보답의 마음까지 담아 그리움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목메여 부릅니다.

…

아 김정일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국립연극단 단장 리지영

꿈만 같은 행복에 목메여

지금도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을 그리면 격정으로 목이 꽉 메군 합니다.

우리들에게 경희극 《산울림》을 재창조할데 대한 과업을 몸소 말겨주시고 형상방도까지 가르쳐주시며 작품이 선군시대의 명작으로 다시 태여나도록 해주신분은 다름아닌 우리 장군님이시고 그 모든 성과를 우리 국립연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신분도 어버이장군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의 큰절을 드리기도 전에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시고 새집들이경사까지 마련해주시였으니 하늘땅에 넘치는 감사의 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날이 커만 가는 위대한 어버이의 그 사랑, 그 믿음은 지금 우리 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몇천몇만배의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명작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의 산울림을 더 높이, 더 우렁차게 울려갈것입니다.

국립연극단 연출가 차진삼

한생을 《산울림》의 주인공처럼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보다도 경희극 《산울림》의 주인공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울 때면 저는 생각이 깊어지군 합니다.

배우년한도 길지 않은 제가 연기를 잘하였으면 얼마나 잘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의 자그마한 재능도 귀중히 여기시고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새집들이도 제일먼저 축복해주시였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저의 어머니와 누이동생들까지 곁에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저의 건강도 념려해주신 어버이장군님,

몸소 저의 집을 돌아보시며 집이 마음에 드는가도 물어주시고 우리 가족의 앞날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간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마를줄 모르는 샘물같이 끝이 없고 꺼질줄 모르는 불길같이 뜨거운 그 사랑, 그 은정은 바로 제가 한생토록 영원히 경희극 《산울림》의 주인공처럼 창조와 혁신의 앞장에 설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무대에 설 때마다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꽃펴나는 선군시대 예술인의 보람과 긍지를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군 합니다.

저는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며 집단의 기수, 시대의 선구자로 살며 투쟁하는 제대군인 황석철이 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창조의 산울림, 비약의 산울림을 낳는 진짜배기주인공으로 삶을 빛내여가겠습니다.

국립연극단 배우 김철진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 조별련맹전 소식

우리 나라 팀이 팔레스티나팀을 3:0으로 이겼다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의 광주에서 진행되고있는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 조별련맹전 우리 나라 팀과 팔레스티나팀사이의 경기가 10일에 있었다.

첫 경기에서 남조선팀을 1:0으로 타승한 긍지드높이 우리 팀은 자신만만하게 경기를 주동적으로 운영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중간지대를 철저히 장악한데 기초하여 중앙과 량익측에서 상대방방어진을 돌파하면서 득점기회들을 마련하였다.

전반전시작부터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려 드센 공격을 들이대던 우리 선수들이 통쾌하게 두꼴을 성공시켰다.

후반전에서도 공격과 방어, 빼몰기와 단번련락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경기속도를 높인 우리 팀에서 멋있는 득점장면을 펼치였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팔레스티나팀을 3:0으로 이겼다.

우리 나라 팀은 13일 요르단팀과 조별련맹전 마지막경기를 하게 된다.

제29차 윤이상음악회 개막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제29차 윤이상음악회가 개막되였다.

해마다 평양에서 진행되는 음악회는 윤이상선생이 남긴 음악작품들을 민족의 재부로 길이 전하며 겨레의 단합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계기로 되고있다.

음악회개막공연이 10일 윤이상음악당에서 있었다.

안동춘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중앙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문 교원, 연구사, 학생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윤이상선생의 부인과 딸, 도이췰란드음악방송회사취재단 등이 공연을 보았다.

한철 문화성 부상이 발언하였다.

그는 윤이상선생을 잊지 않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뜻깊게 진행되는 음악회가 겨레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는데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번영하라 조국이여》, 윤이상작곡들인 첼로와 하프를 위한 2중주,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2중주, 바이올린협주곡 제3번을 비롯한 작품들이 올랐다.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과 여러 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한 공연은 높은 형상수준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음악회는 12일까지 진행된다.

핀란드공화국 외무성대표단 귀국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빠씨 빠또깔리오순회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핀란드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10일 렬차로 귀국하였다.

제4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 진행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제4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이 1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청춘거리에 있는 무도봉화대에서 채화된 봉화는 2011년 2월 에스또니야의 수도 딸린에서 열리는 제4차 국제무도경기대회 개막식의 봉화대에 지펴지게 된다.

의식에는 리종근 제4차 국제무도경기대회 총조정자, 황봉영 조선무술련맹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무도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알리 몬타제리 세계토아협회동맹 위원장, 무싸 바크샤에이 국제판크레이션련맹 서기장, 리종림 국제무도경기위원회 후원활동총조정자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의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무도의 봉화가 처음으로 타오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이번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국제무도의 강화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리종근총조정자가 제4차 국제무도경기대회에 보내는 홰불봉을 봉화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봉화수들이 채화한 홰불봉을 들고 청춘거리의 도로를 따라 달리였다.

적십자가을철나무심기 진행

【평원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적십자가을철나무심기가 10일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리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군들, 청소년적십자 자원봉사자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우리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아카시아나무, 평양단풍나무들을 심었다.

독자의 편지

이런 고마운 동지들을 자랑합니다

혁명사적지건설관리국 황해북도려단에서 돌격대생활을 하던 제가 몇달전에 휴가를 받고 집으로 갔을 때입니다.

어느날 뜻밖에도 이전에 제가 일하던 사리원시량정사업소의 일군들과 그때 제가 속해있던 작업반의 동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돌격대생활이 힘들지 않는가고, 건강은 어떤가고 따뜻이 물어보면서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는 보람찬 일터에서 일하는 동무야말로 우리 사업소의 긍지이고 자랑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사업소에서 이룩된 성과들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돌격대생활도 일일이 물어보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받고있던 어느날 안해가 갑자기 앓아누웠을 때에도 그들은 영양식품들을 안고 자주 찾아와 제 안해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온갖 지성을 다하였습니다.

제가 돌격대로 떠나던 날 집걱정은 말고 돌격대생활을 잘하라고, 우리들의 몫까지 합쳐 혁명사적지건설에서 위훈을 세워달라고 당부하던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삼삼합니다. 이런 고마운 동지들을 널리 자랑하고싶습니다.

이런 훌륭한 조직과 집단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저는 건설장마다에 성실한 땀을 바쳐가겠습니다.

혁명사적지건설관리국
황해북도려단 최승남

조선인민군 송경철소속부대 림경철동무

한식솔이 된 사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지난 7월 어느날 저녁 조선인민군 송경철소속부대 군관인 림경철동무는 안해와 자식들과 함께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들의 손에는 안해의 성의가 깃든 별식들이 담긴 꾸레미가 들려져있었다. 그날은 림경철동무가 아버님이라 부르는 허승용로인의 생일이였다. 비록 피를 나눈 부모자식은 아니였지만 두 가정사이에 오고가는 정은 각별하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림경철동무의 눈앞에 두 집안의 인연이 맺어지던 길지 않은 나날이 추억의 물결되여 파도쳐왔다.

림경철동무가 허승용로인을 알게 된것은 지난해 12월초 어느날이였다. 그날 우연히 로인의 집에 다녀오게 된 림경철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수십년전 당의 뜻을 받들고 수도 평양을 떠나 농촌에 자원진출한 허승용로인, 그는 반일애국렬사의 유자녀였다. 나이가 많아 집에 들어온지 오랬지만 오늘도 그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었다.

다음날부터 림경철동무의 하루일과에 조항이 하나 더 늘어났다. 허승용로인의 집을 찾는것이였다.

매일같이 찾아와 건강상태도 알아보고 때로는 안해와 함께 미처 손이 가닿지 못하는 집안의 크고작은 일들을 두팔걷고 깐지게 해주는 그들의 모습에 로인내외는 가슴이 후더워졌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을 위해주려는 그 진정을 어이 모르랴. 하지만 군복입고 조국을 지키는 그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것만 같아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 생각을 읽은듯 한번은 림경철동무가 웃으며 말하였다.

《친자식만이야 하겠습니까. 그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버님에게서 많은것을 배우고 힘을 얻습니다.》

허승용로인의 집을 찾을 때마다 림경철동무는 그의 정신세계에 머리가 숙어졌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바쁜 영농철이면 농장포전으로 달려나가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는 로인,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고마운 조국을 위해 한가지 일이라도 더 하고싶은 마음뿐이라는 그를 보며 감동을 금치 못한 림경철동무였다. 그러는 허승용로인의 모습에서 림경철동무는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듯 하였다. 전쟁로병이였던 림경철동무의 아버지는 한생 전화의 그날처럼 삶을 빛내이다가 몇해전에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그래서인지 허승용로인에게 더 존경이 가고 마음이 끌리였다. 날과 달이 흐를수록 림경철동무와 그의 안해 리옥순동무에게는 로인내외가 친부모처럼 여겨졌다. 로인내외는 림경철동무와 그의 안해, 자식들을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라 사랑과 정을 담아 불렀다. …

성의껏 마련한 생일상앞에 마주앉은 허승용로인의 가슴은 뜨거웠다.

《온 나라를 고상한 도덕의리가 차넘치는 화목한 대가정으로 가꿔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이 젖어들뿐이네.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줄 아는 한식솔로 살자구.》

본사기자 김진욱

주체성확립은 자주통일위업의 생명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으려는 외세와 그와 야합한 사대매국세력의 책동은 의연히 악랄하다. 6.15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의 반통일망동으로 북남관계는 파국에 처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던 통일운동도 엄중한 시련을 겪고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간섭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책동은 변함이 없다. 남조선당국도 민족자주의 원칙에 배치되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면서 그와 결탁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리고있다.

현실은 우리 민족이 통일위업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를 걷어내고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다그쳐나가자면 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는 여기에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주체성확립은 조국통일위업의 본성적요구이며 생명선이다.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성확립을 떠나서 조국통일위업의 전진이나 그 어떤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은 외세에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애국위업이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조국통일의 방해군인 외세에게 의존하여서는 언제 가도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간고한 조국통일운동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조국통일위업에서 주체성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그것은 조국통일위업 그자체가 우리 민족내부문제이고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것이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다. 조국통일을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주인이 되여 이룩하겠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면 얼마든지 민족자체의 힘과 지혜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에서 주체성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조성된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지난 세기 중엽에 시작된 우리 민족의 분렬은 새 세기에 들어와 10년이 되는 오늘에도 계속되고있다. 조선반도의 절반을 무력으로 강점한 미국은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지배를 강화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를 짓밟고있다. 력대로 미국은 남조선에서 친미사대분자들을 내세워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위업을 악랄하게 방해하였다.

현 남조선당국의 대미정책은 친미사대로 일관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집권하자마자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관계회복》을 떠들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였다. 그들은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한 오늘도 여전히 민족공조를 부정하고 외세와 적극 공조하면서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방해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지금 동족과의 대화와 협력은 반대하면서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모의판들을 뻔질나게 벌리고 상전이 벌리는 국제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의 맨 앞장에 나서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친미사대정책과 외세와의 《동맹》강화책동으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또다시 찬물이 뿌려지고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도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족이 주체성을 철저히 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추호도 용납치 말며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반역하는 사대매국행위를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민족주체성확립의 기치이다. 해내외의 온 민족은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방해하는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지배를 더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된다.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리익을 해치고 조국통일위업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반역도배들의 매국행위를 폭로단죄하는 거족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주체적력량의 강화는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에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주체의 위력은 단결에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기초하여 민족적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가장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의 주인은 전체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의 구호밑에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뛰여넘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안에서 통일애국세력은 절대다수를 이루고있지만 반통일세력은 한줌도 안된다.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아무리 악랄하다 해도 통일을 지향하는 온 민족이 마음과 뜻을 합치고 민족적단결을 강화한다면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할수 있고 그 위력으로 민족자주위업, 통일위업의 승리를 능히 안아올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주체성을 구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필승의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주체성의 최고체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진두에 모시고 가장 성스러운 애국위업을 수행해나가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정 옥

공화국은 사상의지적통일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북녘을 제대로 알자. 어찌하여 선군의 푸른 하늘은 저렇게 높기만 할가. 공기가 맑고 물도 깨끗한 곳, 그 하늘은 푸르고 넓기만 하다. 이웃과 이웃이 하나이고 전체가 하나를 위하고 하나가 전체를 위하는 평등사회, 부정부패가 없고 분렬과 지역갈등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미군이 없고 오염이 없는 평화로운 땅, 민중모두가 빚없이 살며 주인으로 된 사회, 자주권과 자주성이 넘치는 사회, 어디 그뿐인가. 령도자와 당 그리고 인민이 의리와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진 대가정, 바로 이것이 북녘의 모습이다. …

미제국주의자들이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사대매국노들이 아무리 중상하고 모략하며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검은 구름은 북녘하늘에 머무를 공간이 없다. 북녘에는 이미 전세계가 감동해온 **김정일**령도자님에 의해 전개되여온 선군정치가 있고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한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기때문이다. 하여 북녘하늘은 영원히 푸르고 높을것이다.》

이것은 언제인가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되였던 글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온갖 시련을 헤치고 강성대국에로 비약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용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남녘겨레의 심정을 대변한 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때보다 강해지고있다.

《**김정일**령도자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이북의 일심단결, 이것은 무적의 힘을 낳는 위력의 원천이다.》, 《이북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필승의 강국》, 《수령, 당, 민중이 일심단결된 이북은 필승불패이다.》

남녘의 그 어디에서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를 떨쳐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동경과 찬탄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남조선의 자주연구학회의 한 회원은 《북의 안정, 그 비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겹쌓이는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흔들림도 없이 난관을 극복해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신비스러울 정도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이북의 강의한 생명력의 원천이 바로 이북민중이 말하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일심단결이다. 다시말하여 단순한 기계적뭉침이나 산수적결합이 아니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한몸을 이루는 유기체식결합이다. 여기에서 수령은 뇌수이고 당은 중추이며 대중은 그에 의해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몸체이다. 지금 세상에 200여개의 나라가 있지만 령도자와 군민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일체화된 나라는 이북밖에 없다.》

옳은 주장이다.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의지적통일체, 도덕의리적단합체, 조직적전일체를 이루고 그 위력으로 필승불패하는 우리 선군조선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끝없는 동경과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만사람의 찬탄을 자아내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일심단결,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인덕정치, 사랑의 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앞에 사납게 휘몰아치는 반공화국침략의 광풍도 산산이 흩어지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은 온 누리에 빛나고있다. 선군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이 있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민족의 창창한 래일이 밝아온다는것은 남녘인민들의 심장속에 굳게 간직된 진리이고 신념이다.

하기에 남녘인민들은 자기들의 변함없는 의지를 담아 이렇게 웨치고있다.

《위대한 령수가 위대한 단결을 낳는다. 이제 온 겨레는 민족대단결로 통일대업을 완수하신 **김정일**장군님을 새 천년 통일조국의 시조로 높이 받들게 될것이다.

마침내 하나될 겨레여, 온 세상에 자랑하시라. 21세기의 태양이 펼치는 위대한 민족단합의 하늘아래 그대들이 산다!》

본사기자

특대형모략극을 날조한 전쟁광신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철추를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기자회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1)이 발표된것과 관련하여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중국, 로씨야, 에짚트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들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기자회견들에는 해당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기자들과 현지 외신기자들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들에서는 해당 나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일군들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천안》호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때를 만난듯이 그것을 우리와 억지로 련계시키면서 일찌기 류례없는 반공화국대결광풍을 일으키기 시작한데 대해 언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천안》호사건의 《북 개입설》을 날조극, 모략극으로 락인하고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밝힐 의지를 내외에 선포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사건의 혹막이 드러나는데 불안을 느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의 현지조사를 한사코 막아나서면서 서둘러 《민군합동조사단》의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것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날조품인 《최종보고서》라는것까지 발표하여 만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는데 대하여, 우리 나라 주변해상에서 그 무슨 《무력시위형》련합해상훈련이라는것을 련속 벌리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제재소동에 광분한데 대하여 까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현지조사는 물론 사건해결을 위한 우리의 아량있는 제안까지 거부하고있는 이상 《천안》호사건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날조극, 모략극인가 하는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검열단 진상공개장(1)의 상세한 내용을 렬거하였다.

그들은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모략극을 날조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시대와 력사의 준엄한 철추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한편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우리 나라 상설대표부에서는 5일 영국로이터통신 기자와의 회견이 있었다.

대결정책철회는 남조선민심의 지향

남조선에서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에 매달리며 북남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있는 보수당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는 얼마전 성명과 론평을 발표하여 당국의 부당한 탄압행위에 맞서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끝까지 투쟁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범민련은 성명과 론평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철회해야 하며 당국이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사업의 재개와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북의 대화제의를 《전술》로 모해하고 《급변사태》니,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니 하며 《천안》호사건을 조작하였다고 까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무려 3년이나 대결정책을 펴보고도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분간도 못하는자들이 국정을 롱단하고있으니 대화가 생길리 만무하고 어렵게 마련된 대화도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수밖에 없다.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세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억누를수 없다. 현 집권세력은 환상에서 벗어나 대결분자들을 제거하고 남북대화, 금강산관광재개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다.》

최근 《통일세》망발을 거듭하고있는 보수세력의 망동을 두고 남조선 각계는 그 불순한 기도를 까밝히면서 반통일책동을 한결같이 규탄배격하고있다.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은 얼마전 론평을 발표하여 당국의 반통일적인 《통일세》론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얼마전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현 《정부》 임기내에 《통일세》를 도입할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이 추진하는 《통일세》란 그 무슨 《북급변사태》를 념두에 둔 반통일적이며 불순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으로서 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철회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반통일적인 〈통일세〉론의 중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국의 대결정책이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통일세》는 이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있다고 까밝혔다. 신문은 당국이 추진하고있는 《통일세》는 한마디로 《북급변사태》에 대비한것이라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북을 압박하는데 초점을 둔 당국의 대결정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신문은 통일부가 거액의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세》연구와 선전비용으로 쓰겠다고 하는것은 반통일적인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라고 하면서 그릇된 《통일세》론의를 걷어치우고 북남사이의 협력교류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지방자치단체들과 각계 민간단체들도 지금 북남관계는 이전의 대결시대에로 후퇴하였다고 하면서 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인도주의협력사업을 정치문제와 결부시키지 말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단체들은 이제는 당국의 《대북정책》을 더이상 따를수 없으며 북남협력교류사업을 당국의 승인이 없이도 여러가지 형태로 계속 벌려나가겠다고 선언해나서고있다.

보수당국의 부당한 대결책동을 반대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이룩해나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의지는 막을수 없다.

김 현 철

민주화말살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인권단체련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서울에서 민주화말살에 미쳐날뛰는 파쑈광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의 폭압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중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당국이 국제회의의 미명하에 경찰과 군대가 마음대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한것은 인권유린행위가 한계를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폭압세력이 사람들을 의심하며 닥치는대로 잡아가두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의 탄압소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광란적인 폭압소동을 단죄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학생위원회가 3일 모든 민주세력이 당국의 탄압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나설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현 《정부》가 국제회의의 미명하에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하여 민중의 집회,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특별법이라는것을 제정한데 대해 밝히고 이것은 사실상 민중을 상대로 선포한 계엄령이나 다를바 없다고 규탄하였다.

최근 당국의 민간인불법사찰, 진보단체성원들에 대한 구속, 강제수색소동이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으며 탄압에 항거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고 호소문은 밝혔다. 호소문은 당국이 민중의 목숨이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과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재협상까지 강행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의 독재통치로 말미암아 사회의 민주화가 무참히 유린되고 민중의 고통은 날로 커가고있다고 하면서 더이상 《정부》의 반민중적행위를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호소문은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사회의 민주화실현과 생존권쟁취를 위해 전민중이 당국의 탄압에 맞서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굴욕적인 추가협상책동에 항의

남조선당국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위한 추가협상을 강행하려 하는것과 관련하여 5일 야당들이 이에 강력히 항의해나섰다.

민주로동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의 추가협상은 민중의 권리를 짓밟고 밀실야합을 위한 반민주적행위일뿐아니라 망하는 외교,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로 될것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는 밀실에서의 협상을 가로막기 위해 롱성에 돌입하여 사대매국을 일삼는자들을 끝까지 심판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미국에 퍼주기를 하고있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주의는 인민의 락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삶의 지향에 비낀 판이한 두 현실

얼마전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찾았던 우리는 8명 당원들중의 한 사람인 리득훈동무로부터 한 보건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의주시의약품관리소에서 일하는 한성옥동무였다.

10여년전부터 10명 당원들과 8명 당원들을 비롯한 락원로동계급의 건강을 위해 순결한 량심을 바쳐온 평범한 녀성, 낮에는 약국에서 맡은 일을 하고 저녁이면 신포향주철직장에 나가 찔광이차, 결명자차 등을 로동자들에게 안겨주며 그들의 투쟁을 고무해준 성실한 보건일군을 두고 누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0년전 1월, 락원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0명 당원의 한사람들인 호천학, 황순화, 장홍준영웅들을 만나시여 전화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하는 그들을 높이 평가해주신 이야기를 전해듣고 더욱 분발해나선 한성옥동무였다.

주변의 가파로운 산발을 톺으며 한뿌리, 두뿌리 약초를 채취하여 보약들과 차들을 만들 때, 10여가지의 대중약품이 들어있는 수백개의 가정약품함을 성의껏 만들어 안겨줄 때 그의 가슴에 간직된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락원로동계급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뜨거운 지향이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간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는 한성옥동무를 비롯한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하지만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는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패륜패덕이 성행하는 인간생지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은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남조선사회에서는 사기와 협잡, 살인과 강도를 비롯한 범죄행위들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날로 더해가는 생활고와 빈부격차의 심화는 각종 범죄를 낳고있다.

2008년에 남조선에서 실업자가 7만 3 000여명이나 늘어났으며 세대당 빚은 평균 4만US$를 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위기는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갔으며 그것은 범죄로 이어지게 하였다. 2008년에 발생한 범죄건수는 근 200만건이나 되는데 살인범죄는 그 전해에 비해 5.6%, 강도행위는 8.3%, 성폭력행위는 4.1%, 폭행, 구타 등 폭력행위는 32.7% 늘어났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외한 그밖의 모든 사람은 남이며 필요없다. 오직 나혼자 편안하고 잘살면 그만이다.》

이것이 남조선사회에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지배하고있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 황금만능에 기초한 자기 중심의 생활관, 륜리관이다.

썩어빠진 자본주의생활양식이 만연되여 패륜패덕의 시궁창으로 되여가는 사회현실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절망과 비판을 안겨주고있다.

얼마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자살자가 하루평균 35명으로서 세계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

1998년에 8 600여명이였던 자살자가 2008년에는 1만 2 0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만 4 500여명이 자살하였다.

앞날에 대한 아무러한 희망도 가질수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살아가는것자체가 고통스러우며 결국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막을수 없는것이다.

값높은 영예를 안고 보람찬 삶의 길을 걷는 락원땅의 보건일군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밝은 모습과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인간생지옥에서 절망과 비관속에 헤매이는 남조선인민들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판이한 두 현실은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는 참관자들
—황해남도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날강도의 본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해방전 동창군 봉룡리에는 교활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지주가 있었다. 악착한 그 놈은 강제로 마을의 한 소년을 제 집 머슴으로 만들었다. 그 소년은 여섯살에 부모를 잃고 가랑잎마냥 떠돌아다니던 강씨였다. 지주놈은 그에게 매끼 죽 한그릇을 먹이고는 마소처럼 부렸다.

언제인가 지주놈의 담배밭을 후치질할 때였다. 강씨소년이 소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지주놈이 나타나 소는 둬두고 후치만 메고 밭에 나가라고 하였다.

자갈투성이인 밭에 이르자 뒤따라온 지주놈은 소년의 등에 채찍을 안기며 후치를 끌게 했다. 세고랑도 못 미쳐 소년은 쓰러졌고 그의 발가락에서는 피가 흘렀다.

《짚을 먹고 사는 소가 다 끄는데 낟알을 먹고 사는 〈짐승〉이 그것도 못 끌어?》

지주놈은 회초리로 소년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악착한 지주놈은 강씨가 나이가 들고 반항심을 품게 되자 그를 다른 지주놈에게 팔아버렸다. 그 지주놈의 집에서도 강씨에게 차례진것은 천대와 매질뿐이였다.

그 지주놈은 돈벌이를 위하여 그에게 숯굽는 일을 시켰다. 채식지 않고 연기도 빠지지 않은 가마속으로 숯과 나무를 안고 드나드느라면 금시 쓰러질 지경인데도 지주놈의 채찍은 꼬리를 물고 따라다녔다. 더는 견딜수 없게 된 그는 그 악마의 소굴을 뛰쳐나왔다.

정처없이 헤매던 그가 이른 곳은 어느 한 산골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산골지주놈의 땅을 얻어부쳤다. 그곳도 또 하나의 마굴이였다.

지주놈은 부대기들마저도 모조리 장부에 올려놓고 한해농사 지은것을 말끔히 털어갔다. 빈손으로 나앉은 그는 먹을것을 얻어보자고 산판을 뒤지다가 산삼 세뿌리를 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주놈은 경찰놈들과 짜고들어 그를 도적으로 몰아 감옥에 처넣고 산삼을 통채로 빼앗을 흉계를 꾸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너무나 억울하여 지주놈의 집에 뛰여들어 그 놈의 목줄을 옥죄여 눌렀다. 그는 지주놈을 때려눕히고 그길로 그 고장을 떠났다.

강씨로인은 암흑의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이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수난에 찬 생활이였다.

본사기자

전천군계급교양관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적개심을 깊이 심어주어

지난해 계급교양관을 새롭게 꾸린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은 미제와 일본반동들,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여러가지 직관물들을 전시해놓고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김창학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은 매주 학술토론회를 열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강의를 참신하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론을 찾고있으며 자질과 기량을 높이기 위한 학습도 꾸준히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이들은 실물을 통한 계급교양사업을 적극 진행하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공중비적들이 투하하였던 불발된 폭탄과 폭탄파편들을 전시해놓고 전천땅에서 감행한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날날이 폭로하는 해설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관자들로 하여금 미제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이며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깊이 새겨안게 하고있다.

계급교양관을 찾는 참관자들은 불발탄앞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고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오 은 별

서방의 《원조외교》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방렬강들이 위선적인 《원조외교》로 생색을 내고있다. 그들은 유엔총회를 비롯한 주요국제회의때마다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원조》문제를 주요의제로 상정시키군 한다. 서방나라들은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자수를 절반으로 줄일것》이라는 귀맛좋은 소리를 외워대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유엔천년기개발목표에 관한 수뇌자회의에서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자기 나라가 《원조를 제공하는데서 계속 세계선도국으로 남아있을것》이라느니, 《우리에게 생존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을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흰소리를 쳤다.

세계무대에서 누구보다도 《원조》타령을 자주 외워대는것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저들을 발전도상나라들의 《구세주》로 묘사하며 저들의 《원조》가 없이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살아갈수 없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넉두리는 세계를 기만하고 저들의 몸값을 올려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는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로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빈궁청산과 사회적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리속을 채우는데 《원조외교》를 써먹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거는것보다 어리석고 위험한것은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가기 위한 략탈과 예속의 올가미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의 《원조》를 받아 부유해진 나라는 없다. 침략과 략탈을 생리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을 도와준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를 놓고보자. 미국에 있어서 사심없는 원조란 있을수도 없고 있어본적도 없다. 있다면 갖가지 부대조건이 붙은 리기적속심이 깔린 원조 아닌 《원조》뿐이다. 이전 미국대통령 닉슨은 《우리의 대외 〈원조〉는 미국의 전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오는것이 있어야 가는것이 있듯이 보수가 없으면 주지 말아야 한다.》고 뇌까렸다.

여기에서 명백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미국의 《원조외교》는 철두철미 자기의 전략적목적과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대가가 없는 《원조》, 리해관계를 떠난 《원조》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바로 미국식 《원조외교》, 제국주의 《원조》정책의 본질이다. 한마디로 제국주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는 략탈도구이며 경제적예속의 올가미이다. 여기에 제국주의 《원조외교》의 기만성과 반동성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내흔드는 《원조》는 그 어느것이나 다 그들의 리해관계와 련관되여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9.11사건이 터진 후 제국주의자들은 《반테로전》을 기화로 《원조》타령을 요란하게 외워대면서 그것을 저들의 지배주의적목적실현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원조》가 현시기 특정한 지역과 나라들에 집중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방의 《정부개발원조》가운데서 《반테로전》의 무대로 되고있는 지역과 나라들에 제공된 《원조》몫은 2000년의 2%로부터 최근년간에 26%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런가하면 현재 가장 가난한 60여개 나라들에 제공되는 《원조》액은 서방의 《정부개발원조》액의 50%도 못된다고 한다.

오래동안 《반테로전》의 무대로 되고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위치상 놓고볼 때 원유자원지대이며 군사전략적요충지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중동지역과 까스삐해를 포함한 중앙아시아지역의 전략자원을 틀어쥘수 있는것은 물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국면이 조성될수 있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심각한 경제침체와 막대한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군사원조》, 《개발원조》를 비롯한 각종 《원조》의 명목으로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군사정치적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교활한 수법에 매달려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에 경제적예속과 략탈의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있다. 현시기 서방나라들은 《원조》대상들을 철저히 투자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선택하고있다. 실례로 2008년 미국은 《정부개발원조》에서 투자효과성이 높다고 본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그 전해보다 27% 늘인 반면에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는 31%나 줄이였다.

경제의 《세계화》흐름을 타고 서방의 다국적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의 채취, 원유,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에 침투하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다국적회사들은 최근년간 《원조》의 간판밑에 발전도상나라들에 투자한 매 1US$당 4~5US$, 지어는 10US$이상의 리윤을 짜냈다. 이를 통해 제국주의자들은 해당 나라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는 한편 《원조》공간을 통하여 최대한의 고률리윤을 얻고있다.

서방의 《원조》에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부대조건들도 점점 더 가혹해지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식량《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반드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선박을 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를 붙이고있다. 그리고 자국내 농산물생산업체들로부터 《원조》용식량을 국제시장가격보다 10%이상의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하고 그 수송비를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76%나 높게 정하고있다. 미국은 위선적인 《원조》간판을 내들고 다른 나라들에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자국농산물보호무역정책을 강행하고있다.

언제인가 나이제리아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서방나라들은 〈원조〉를 리용하여 우리의 한쪽 주머니에 1US$를 넣어주고 다른쪽 주머니에서 10US$를 꺼내가고있다.》고 비평한바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원조외교》의 기만성과 략탈성을 여실히 까밝힌것이다.

제국주의《원조외교》는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공공연히 리용됨으로써 그 강도적성격과 반동적본질, 위험성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최근시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원조》를 주는 경우 《군사원조》에 중점을 두고있다. 이전 쏘련지역인 중앙아시아나라들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미국은 《반테로전》을 코에 걸고 이 나라들에 주로 《군사원조》를 제공하고있으며 이것을 턱대고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정치적요구를 들이대고있다.

미국이 《원조외교》를 정치적음모에 리용한 실례는 허다하다. 지난해 미국이 니까라과에서 진행된 선거를 걸고들며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리유로 《원조》를 중지한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니까라과에 대한 미국의 《원조》중지조치는 일종의 정치적압력과 내정간섭행위라고 말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금이 부족한 나라들에는 리자률이 높은 단기자금을, 기술이 미약한 나라들에는 뒤떨어진 기술을, 식량사정이 어려운 나라들에는 잉여량곡을 《원조》의 외피를 씌워 제공하고는 그 대신 《정치개혁》과 서방식 《인권》정책의 도입, 군사기지의 제공과 장기리용, 부르죠아사상문화에 대한 개방 등 내정간섭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요구를 공공연히 들이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만약 일이 저들의 뜻대로 안되면 이런저런 구실밑에 보잘것 없는 《원조》마저 중지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제국주의 《원조》놀음은 등치고 간 빼먹는 식의 교활한 략탈수법이며 지배와 예속의 공간이다. 한마디로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는 가시가 박혀있고 독이 들어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원조》를 각성없이 무턱대고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겪고있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민족경제가 침체상태에 처하거나 파산되고 사회정치적혼란이 조성되고있으며 막대한 재부를 서방렬강들에게 빼앗기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아프리카나라들이 서방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겨우 3 600만US$였으나 반대로 서방과의 무역에서 입은 손실액은 무려 2조 8 00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그나마 서방세력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낯내기식으로 제공하던 이른바 《원조》는 세계를 휩쓰는 금융, 경제위기의 여파로 그 액수가 계속 줄어들어 오늘날에 와서는 명색뿐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원조외교》의 기만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간파하고 그에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만일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심이 깔린 《원조》에 미련과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의존한다면 언제 가도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없고 《동냥군》의 신세를 면할수 없으며 종당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희생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존하여 그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것은 매우 유해롭고 위험하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사회경제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는 외세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강화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것이다. 이것은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교훈이고 진리이다.

전 영 희

여러 나라 통신, 방송이 우리 나라 소개

미래를 확신하고있는 조선인민

중국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이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본 방송대표단의 소개편집물을 1일과 2일에 방영하였다.

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은 누구나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린다.

조선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고 경의를 표시한다.

김일성주석의 동상앞에선 우리는 숭엄한 감정을 금할수 없었다.

주석의 동상앞에 펼쳐진 꽃바다를 보고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경모의 정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방송은 **김정은**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되신 소식을 세계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한데 대하여 전하면서 조선인민은 자기들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방송은 대표단의 우의탑 참관장면과 함께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평양에 있는 우의탑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60년전 중조 두 나라 인민이 함께 싸우던 때를 회고하였다.

우의탑은 1959년 10월 25일에 건립되였다.

탑에는 지원군용사들이 조선인민과 함께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습과 전후복구건설을 도와주는 모습을 형상한 벽화들이 있다.

탑을 돌아보면 지원군과 조선인민이 얼마나 간고분투하여 승리를 이룩하였는가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피로써 이룩한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방송은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호금도주석과 상봉하시는 사진을 모신 우표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조중관계발전력사를 보여주는 우표들이 발행된데 대하여,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 ⁘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이 최근 우리 나라에서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통신은 지금 조선에서 개선된 설계에 의한 표준형살림집들을 건설하고있다고 하면서 평양시의 해방산지구에 가보면 이것을 잘 알수 있다고 전하였다.

통신은 현대적으로 건설된 살림집들의 내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렇게 생활에 편리한 주택들이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오늘날 평양시에서만도 10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진행되고있다.

건설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끝나게 된다.

조선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을 보다 웅장화려한 도시로 건설할데 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본사기자

로씨야의 도시들에 군인영광의 도시칭호 수여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 찌흐빈, 뜨베리시들에 군인영광의 도시칭호가 수여되였다.

로씨야대통령 드미뜨리 메드베제브가 4일 이와 관련한 정령을 비준하였다.

정부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도시방위자들이 용감성과 완강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한것으로 하여 이 3개 도시들에 명예칭호를 수여하기로 하였다고 이따르—따쓰통신은 전하였다.

벨라루씨와 우크라이나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93돐 기념

벨라루씨의 민스크에서 7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93돐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좌익정당, 사회단체성원들과 로병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레닌동상에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사회주의 10월혁명의 력사를 잊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의 끼예브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93돐을 맞으며 시위와 집회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우크라이나최고라다(국회) 대의원들과 우크라이나공산당 성원들을 비롯하여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붉은기발들을 들고 거리를 따라 행진하였으며 광장에서 집회와 경축음악회를 가지였다.

규탄배격받는 미국

▲인디아의 러크노우시에서 5일 미국집권자의 이 나라 행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이란에서 반미시위

시위참가자들은 《미국집권자는 물러가라!》, 《미국에 죽음을!》 등의 글들이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미국기발을 불태우면서 미국의 지배주의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리비아정부가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관 서기관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미국외교관이 외교상 규정과 규범에 어긋나게 행동한데 대해 폭로하고 그에게 24시간내에 리비아를 떠날것을 요구하였다.

7일 이 나라 신문들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강점자의 《안정》타령

최근 미국가안보문제담당 대통령특별부보좌관이라는자가 보도발표모임에서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 그는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주둔은 《안정과 번영의 초석으로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떠벌였다.

평화롭던 이라크땅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격증되고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이 지속되여 어느 하루도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마를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이라크주둔을 이 나라 인민들을 《테로》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것인듯이 표방하는 미국이고보면 그의 망발은 별로 새삼스러운것이 못된다.

하지만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설교한 그의 넉두리는 너무도 파렴치하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반세기이상 비법적으로 가로타고앉아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이고 미국의 북침전쟁전략실현의 선견대이며 주력이다.

남조선에서 온갖 범죄를 일삼으며 북침전쟁소동의 앞장에서 광분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강점군이다. 그들의 남조선강점과 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는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평온한 날이 없으며 항시적으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는 새 전쟁위험이 언제 한번 가셔져본적이 없다. 미국의 침략과 간섭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은 위험천만한 핵전쟁의 문어구에 놓여있다.

아무리 거꾸로 말하기 좋아하는 작자라고 해도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의 주범이며 전쟁의 화근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어떻게 《평화의 수호자》, 《안정의 담보자》로 감히 춰올릴수 있겠는가.

원래 세계도처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군으로 말하면 타민족을 총칼로 억누르고 미국의 지배주의, 간섭정책을 군사적힘으로 안받침하기 위해 파견된 침략무력이다. 이러한 침략군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피가 마를 날이 없고 재난이 그칠줄 모르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안정》은 저들의 지배주의정책실현에서의 안정을 말하는것으로서 타민족에게는 불안정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은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미전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세상사람들이 보란듯이 통일된 강성대국을 일떠세웠을것이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가져왔을것이다.

외래침략군의 발굽밑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릴수 있다고 설교하는것을 그대로 믿는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쓸개빠진 사대매국노들뿐일것이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민족에게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줄 의사가 있다면 하루빨리 미강점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본사기자 리 현 도

교육발전조치에 대해 언급

우간다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가 5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교육발전조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다음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료교육제를 실시할것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은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게 하며 가정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생활이 어려운 북부지역 대학생들의 학비를 정부에서 보장해줄것이라고 말하였다.

적들의 위협책동 배격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한 담화석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적들의 위협책동을 배격하였다.

지금 적들이 이란선박들에 대한 검사를 강행할것이라고 위협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적들이 실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란의 국방력이 현저히 개선되였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정부의 모든 활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있다고 밝히고 원쑤들의 압력책동이 강화될수록 이란인민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왔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에서 미국과 서방의 전쟁책동에 대처한 전략물자확보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10월 30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정부가 유사시에 쓸 9억$의 물자를 마련해놓았다고 밝혔다.

이 물자는 적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즉시 전국각지에 보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호항고속철도 개통

중국에서 시속 350㎞의 호항고속철도건설공사를 끝내고 10월 26일에 개통하였다. 상해시와 절강성을 련결하는 이 철도의 길이는 202㎞에 달한다. 공사는 2009년 2월에 시작되였다. 호항고속철도는 동부지역의 경제발전을 더욱 다그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무역 증대

중앙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무역액이 올해 상반년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증대되였다. 3일 중앙아메리카통합체계가 이에 대해 밝혔다.

고속도로 건설

이란에서 로레스탄주의 흐르라마바드와 후제스탄주의 안디메슈크를 련결하는 고속도로건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 고속도로의 총 연장길이는 159㎞에 달한다. 2일 104㎞의 구간이 완공되여 개통하였다. 개통식이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제약공장 건설

만마의 양곤시에 최근 제약공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나라의 의약품생산이 늘어나게 되였다. 이 나라 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일자리조성사업

나이제리아에서 앞으로 5년동안 1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조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따라 농업, 제조업, 건설부문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보장에 깊은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소아마비예방접종사업

민주꽁고에서 소아마비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되였다. 1단계 접종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데 이어 2단계 접종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게 된다. 이 나라 보건성은 9개 주에서 1 100만명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사망률 감소

모잠비끄에서 지난 6년동안에 5살미만 어린이사망률이 1 000명당 153명으로부터 138명으로 감소되였다. 정부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이러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연피해

◎타이의 여러 지역에서 무더기비가 계속 내려 큰물피해가 확대되고있다. 큰물로 4일현재 사망자수는 140명으로 늘어났으며 많은 농경지가 파괴되였다. 피해자수는 총 169만명에 달하였다.

피해지역들에서 긴급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 중부쟈바주에 있는 메라피화산이 4일에 또 분출하여 인명피해가 났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용암과 화산재가 뿜어나와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로써 메라피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한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68명으로 증대되였다. 현지에서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꼬스따 리까의 싼 호쎄서 부지역에서 최근 며칠동안 계속 내린 무더기비로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4일현재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32명이 행방불명되였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아이띠에서 6일 열대성폭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들이 침수되였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도미니까에서 5일 무더기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1 680채의 살림집이 무너지거나 손상을 입고 8 400명의 주민들이 소개되였다. 특히 싼또 도밍고에서 3개 주민구역이 물에 잠겼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이란의 서부지역에서 6일 리히터척도로 4.9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10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건물들이 손상을 입었다.

본사기자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항의시위, 집회

— 프랑스의 각지에서 6일 당국의 부당한 개혁조치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들이 또다시 벌어졌다. 로조단체들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시위들에는 14만 2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개혁조치를 당장 취소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6일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와 집회가 벌어졌다. 시위와 집회에는 로조단체성원들을 비롯하여 수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악화시키는 부당한 정책을 당장 철회할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제형편 악화

일본에서 경제형편이 계속 악화되여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8일 일본내각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9월에 나라의 경제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그 전달에 비해 1.3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대규모무기판매놀음에 깔린 음흉한 속심

최근 미국은 페르샤만지역 나라들에 많은 군사장비들을 판매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600억US$어치의 무기를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 외신들은 미국의 이번 무기판매계획발표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대이란정책과 지역내의 《테로위협》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한것으로서 그 품목은 신형전투기, 직승기와 기타 군사관련 장비들이라고 전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전자장비를 갖춘 《F—15》신형전투기 84대 등 일괄무기체계를 맞춤형으로 판매하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미 보유하고있는 《F—15》전투기 70대는 신형전투기와 맞바꾸게 된다고 한다. 또한 《아파치》, 《블랙 호크》, 《리틀 버드》 등 근 200대의 직승기와 레이다, 대공 및 대함미싸일 그리고 유도폭탄 등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제공되게 된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무기판매액수는 사상 최대규모이라고 한다.

미국의 이번 무기판매계획을 놓고 미국무성의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그것은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사이에 이미 전부터 존재하여오고있는 장기적군사관계를 보강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무기판매조치가 이란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만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안보상지원》을 주기 위한것이라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위치한 지역에서 《테로위협》이 커가고있기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안보》유지를 돕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미국의 이번 대규모무기판매조치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군사력강화와 지역안보를 위한것인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시기 미국은 중동지역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확보하려고 각방으로 애써왔다.

단적인 실례로 미국의 군사장비판매조치의 덕으로 오래전부터 《F—15》전투기들을 보유하고있는 이스라엘은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F—35》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중동지역에서 군사적우위를 확보하게 하여 중동지배전략실현의 대리인,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전략적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번에 미국이 만지역 나라들에 대한 대규모무기판매계획을 발표한것도 중동지배전략에 따른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계획을 두고 미국방성 국제안보문제담당 차관보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만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적지위가 더욱 높아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의 본질은 미국이 무기판매의 방법으로 이 지역나라들에 군사적힘을 키워주어 중동지배전략을 실현하는데서 미국의 부담을 덜고 이 지역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게 하자는것이다.

제반 사실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미국은 만지역 나라들에 대한 대규모무기판매를 통하여 저들의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리워주는것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군사적통제권을 유지강화함으로써 중동지배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고 꾀하고있다.

세계사회계는 음흉한 속심이 깔린 만지역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군사장비판매놀음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신 경 섭

콜레라 계속 전파

아이띠에서 콜레라가 계속 퍼져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이 나라 보건성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기간에만도 전국적으로 1 978명의 콜레라환자가 새로 등록되고 105명이 이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환자수는 6 742명, 사망자수는 442명으로 늘어났다.

뎅구열피해

— 싱가포르에서 뎅구열이 계속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4일 이 나라 신문 《스트레이즈 타임스》는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4 360여명의 뎅구열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캄보쟈에서 뎅구열이 계속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9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약 1만명이 이 병에 걸렸으며 그중 2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01205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